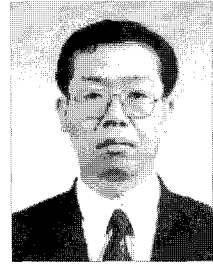


농업선진화를 위한 농업교육 강화방안



전문위원 **박범준**
농업선진화위원회 경쟁력강화분과

1. 우리나라 농업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1980년대 이후로 30년이 경과하고 있는 요즘까지 범 농업계는 이구동성으로 '한국 농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

1994년 WTO체제 출범이후 다자간 무역 협상인 DDA가 진행되고 있고,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인 FTA체결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전세계가 급속히 단일시장으로 재편되고 있고 아울러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

풍전등화의 조선을 구한 총무공께서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기로 하면 산다'고 하면서 불과 12척의 배로 1,000여척의 일본 수군을 맞이하여 333척을 전파내지 반파시키는 명량대첩을 이끌어 내셨다.

누란의 위기에 봉착한 조선을 구하겠다고 일어섰던 수많은 의병장들의 기개,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쟁취하겠다고 분연히 일어섰던 훌륭한

조상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농업인단체의 리더들이나 우리 농업인들도 크게 고민하며 새로운 의식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1997년 IMF사태가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

단군 이래 최대의 국난이라는 초유의 IMF사태가 터졌을 때,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과연 몇 개나 있었을까? 아마도 몇 개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IMF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는 정체절명의 위기였다. 그리고 기회이기도 했다. IMF는 국내 내수시장을 공공 열어붙게 만들었고, 중소기업들은 쌓여만 가는 재고에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이대로 가면 부도요 죽음만이 기다릴 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선택할 길은 오로지 두 가지 길 밖에 없었다. 앉아서 부도와 죽음을 기

다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해외로 나갈 것인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무모할 정도로 월급 대신 재고 물품을 갖고 무작정 일본으로 대만으로 중동으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달려 나갔다.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해외시장을 조금씩 조금씩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나라 제품과 비교도 하면서 보다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정보도 획득하였다. 각 나라마다의 소비자 트렌드도 알게 되었다. 세계 시장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자신감이 생겼다.

IMF사태이후 5년이 경과한 2002년 즈음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강소기업이 40여개나 출현하게 되었다.

3. 교육의 중요성

덴마크는 1801년과 1811년 영국과 두 차례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노르웨이 땅을 잃고 절망과 나락의 수렁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1864년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합군에 패해 비옥한 땅을 잃고 전쟁 배상금을 강요당하여 망국의 비운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이시기 풍전등화의 덴마크를 기사회생케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다름 아닌 '덴마크 부흥의 아버지 그룬드비히'이다.

그룬드비히는 '교육이 나라를 부강케 하는 원동력'임을 강조하면서 덴마크 청년들에게 애국심과 개척정신을 강조하였다.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면서 국민고등학교를 세워 덴마크 농촌운동의 개척자들을 양성하였다.

이렇게 양성된 농촌운동의 개척자들과 함께 농촌협동조합운동을 전개 나라의 반석을 굳건하게 다졌으며, "우리 덴마크 사람들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성격에 의해서 다시금 위대해 집시다"고 역설하고 "위대한 신념이 없이는 위

대한 국가와 위대한 역사를 창조할 수 없다"고 부르짖으며 정신혁명 의식혁명을 주창하였던 것이다.

4. 농업교육 강화방안

가. 현대계 농업 교육의 현황과 문제

최근 4, 5년 사이 농업 농촌 인재육성을 위한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그리고 [환경농업대학], [리더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인재육성을 위한 많은 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성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첫째, 교육주관기관의 비전문성과 사업주의 경향성이다

인재육성을 위한 농업교육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말미암아 지방자치단체와 친분이 있는 교수 혹은 기관에서 인재육성 교육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교육학을 제대로 전공한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교육의 목표가 명확해야 하고, 교육생 선발이 엄격해야 하고, 교육프로그램이 교육 목표에 부합되어야 하며, 교육프로그램간의 연계성이 있어야 하고, 강사들이 교육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공유되어야 한다.

이상은 교육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는 교육기관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일부 교육주관기관은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 교육과 저항적 지도자육성에 예산을 낭비하기도 하고, 일부 교육기관은 선심성 관광 프로그램 일색으로 구성하기도 한다.

둘째, 교육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

교육주관기관이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이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 는 식의 설문과 함께 (이럴 경우 대부분은 좋았다고 함) 대부분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자체의 평가서를 작성하여 지방 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차기년도 [인재육성 교육 사업]을 따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교육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셋째, 농업교육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IT(정보통신) 강국이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고,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농민도 꽤나 많은 편이다.

인터넷 상에 작목별 재배기술에 대한 교육자료, 경영진단 프로그램, 인사관리, 회계관리, 마케팅 전략, 공동계산제 등 주요한 교육프로그램, 교재와 교육주제별 강사프로필을 게재하여 현장에서 항상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나. 농업교육의 목표와 방향은?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을 진단할 때, 농업교육의 목표와 방향은 “지역단위 품목조합의 육성”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집체교육을 할 때에도 특정지역의 특정품목 농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농민들이 교육과 토론을 통하여 현재의 위기내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처한 환경과 작목의 일치로 인하여 공동 대처 방안을 강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물론 한두 차례의 교육만으로 ‘지역단위 품목조합육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단위 품목조합육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품목

조합 육성’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 성공궤도에 진입하기 까지 외부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컨설팅이 수반될 때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다. 농업교육의 핵심 내용은?

우선 농업이라는 산업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볼 때, 농업은 향약, 두레, 계 등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 협동의 정신이 전제됨을 의미한다.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으면서도 농업강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의 경우에도 농업협동조합으로서 강력한 품목조합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농업선진국 대부분의 경우 품목별 협동조합을 기본으로 하여 농민조직화가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 농민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생산구조가 개별농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별농화 되어있다는 것은 농사의 전과정을 각자가 알아서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농자재도 비싸게 사야하고, 농산물 판매도 각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유통 상인이나 유통기구와의 시장교섭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2차 가공이나 3차 산업과의 연계성을 통한 부가 가치의 획득 기회란 거의 꿈도 꿀 수 없게 된다.

만면 품목조합으로 농민이 단결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필요농자재를 공동구입할 경우 개별구입보다는 훨씬 싸게 살 수 있어서 지출이 줄어들게 되고, 특정한 농자재 특히 퇴비 등은 역할 분담을 통하여 자체 생산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농자재 생산기반을 확보하여 별도의 부가 가치를 획득할 수도 있다.

농작물의 품질이 상향 표준화되어 상품성이 높아지고, 시장교섭력의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 표준화된 매뉴얼과 품목조합내의 재배기술이 우수한 농민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통하여 제품의 상향 균질화를 도모할 수 있고, 엄격한 검수 검품을 통하여 소비자 내지 유통기구 바이어가 원하는 상품을 제때에 공급할 수 있다.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공상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

둘째, 리더십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업교육의 병폐중의 하나가 '어떻게 하면 나 혼자만이라도 잘 살 수 있는가?'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육내용이 개인화되어 있었다.

농업은 앞서 제기하였듯이 '몽쳐야 산다' 그리고 공익적 가치, 즉 전통문화의 보전, 환경보전 등을 위해서도 협업화는 대전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전제를 무시하고 '개인주의 교육'으로 일관하여 왔으니, 성과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차원의 정예 후계인력 육성 정책도 [다수 영세소농 가족농을 조직화하고 지도할 지도자 육성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지난시기 실패한 농정을 답습할 뿐이고, 이럴 경우 '한국 농업의 미래와 희망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 이다.

셋째, 전문가 육성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담당자들은 '한국농업은 6차 산업으로서 비전과 희망이 있다' 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 무슨 말이고 하면 한국농업은 1차, 2차, 3차 산업의 부가가치를 모두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1+2+3=6$, $1 \times 2 \times 3=6$ 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마땅히 그렇게 실현

되어야 한다. 문제는 현행의 개별영농 시스템에서 개별농가가 1차, 2차, 3차 산업의 부가가치를 모두 다 획득할 수 있는냐에 달려있다. 정답은 절단코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품목조합을 중심으로 농민이 뭉치지 않는다면 농민과 관련 없는 가공업체의 육성, 농민과 관련 없는 유통마케팅 주체의 육성으로 결국 생산농가는 1차 산업의 부가가치, 그것도 매우 불안정한 부가가치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이고,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의 많은 부분이 농민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유통마케팅회사와 가공업체 건립에 투여될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품목조합의 육성과 함께 농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유통마케팅 주체와 가공업체 운영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전문가 육성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무역전문가, 전략기획 전문가 등의 육성도 필요할 것이다.

과도기적으로는 품목조합을 중심으로 외부전문가를 영입하여 부족한 전문성을 채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체의 전문가 육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5. 농민지도자에 대한 지도 감독의 중요성

농민지도자의 육성에는 주관기관과 농민지도자간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대적이다.

인재가 '공장에서 봉어빵 찍어내듯이' 손쉬운 일이라면, 21세기 초일류기업과 선진강대국들이 왜 저렇게 목숨을 걸고 '인재육성' 에 매달리겠는가?

인재는 끊임없는 실천 활동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전문성이 축적되면서 확신성과 자신감을 획득하면서 길러지는 것이다.

몇 차례의 이론교육만으로 인재가 육성되리라 여긴다면 이는 오산이요 오판이다.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21세기형 인재가 필요하고, 21세기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정보화사회에 걸 맞는 정보화 능력의 제고이다.

둘째, 조직원의 총역량을 결집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줄 아는 리더십의 배양이다.

셋째,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속정확하게 대응하는 능력이다.

넷째, 변화 발전하는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습득과 활용능력이다.

다섯째, 끊임없이 노력하는 혁신마인드와 자체의 학습 토론 문화를 주도하는 능력

여섯째, 문화의 시대에 대응한 창조적이며 자주적인 정신의 함양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DNA에는 '남에게 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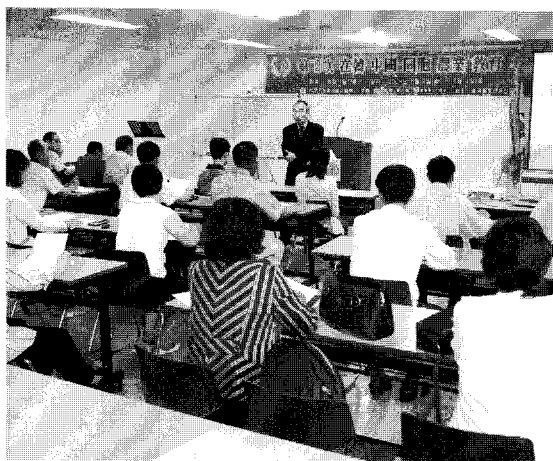
싫어하는 유전인자'가, 그리고 '5천년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창조의 에너지'가 각인되어 있다. 아울러 오투기 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불굴의 의지로 일어서는 용기가 있다.

6.25 전쟁의 폐허더미에서 우리는 일어섰고 이제는 세계 10대 무역강국으로 발돋움했다. 혈혈단신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랜드 마스터'의 칭호를 받고 있는 불굴의 대한민국 여성 김태연은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라고 외친다.

우리 대한의 농민들이여!

이스라엘 농민도 하고, 네덜란드 농민도 하는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농민들이 뭐가 아쉬워서 저들에게 지겠는가? 우리도 할 수 있다. 아니 자라나는 후손들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농업의 희망과 미래를 위하여, 그리고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기필코 성공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세계가 경악할 정도의 무서운 끈기와 열정과 남다른 승부욕이 우리의 뼈 속과 핏속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믿어야 한다. ㉞



▲ 제2차 재한중국 조선족동포 농업교육에서 중국 성장과 아시아 농업에 대한 조동주 원장 강의



▲ 제1기 도시민(소비자) 생활농업교육에서 손수은 정원파수 재배에 대한 강성구 교수 강의